

3·1 운동 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선교적 교회 역할

The Spirit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the Role of a Missional Churc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봉원영
삼육대학교 신학과

Won Young Bong(bong10@syu.ac.kr)

요약

본 연구는 2019년 올해로 3·1 운동이 발발한지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3·1 운동이 한국역사에 미쳤던 의의와 영향들을 살펴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명했다. 또한 이러한 3·1 운동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첫째, 교회는 사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현존하는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그들을 위한 실제적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이상만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의 교회 역할은 어떠해야 하겠는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교회는 소속감을 강조하는 선교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Z세대로 불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시민사회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의 온전한 교회됨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보다 더 선교적인 공동체이어야 한다.

■ 중심어 : | 3·1 운동 | 제4차 산업혁명 | 기독교 | 선교적 교회 |

Abstract

In commemoration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March 1 movement in 2019, the research looked at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 of the March 1 movement on Korean history and highlighted what the church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play. The meaning of the March 1 movements to modern society has been identified as follows. First, the Church needs a clear sense of responsibility for society. Second, there is a need for attention to the next generation, the existing future. Third, prac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young people. Fourth, what is as important as a dreams is the value in it. Focusing on these facts, the study suggested what modern church roles should be lik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the church should attempt a missional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sense of belonging. Second, educ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called the Z generation, is paramount. Third, the church of the new era should be the leader of the civil society movement. Fourth, efforts are needed to realize the identity of the church. So the Church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be a more missional community that reveals the kingdom of God in everyday life.

■ keyword : | March 1 Movement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Christianity | Missional Church |

I. 서론

한국근현대사에서 3·1 운동(三一運動)을 빼놓고는 역사적 서술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3·1 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과도 같은 등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1 운동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여러 갈래의 민주민족운동이 3·1 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결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3·1 운동을 거쳐서 다시 여러 갈래와 방향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1].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33인 민족지도자들의 독립선언서 발표를 기점으로 일제의 식민통치 아래 신음하던 한민족이 거국적인 자주독립을 선언한 운동이다. 그렇게 시작된 3·1 운동은 5월 말까지 약 석 달 사이에 217개 시·군에서 1,491회의 집회가 열렸고, 200만 명 이상의 민중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시 2천만 한국인 전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했던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전민족적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2].

그런데 서양의 근대화가 중세 봉건사회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강한 탈기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에 반해, 한국의 근대화는 오히려 종교로부터 큰 동력을 얻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문물과 기독교적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신민회와 민족교육운동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섬으로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1]. 3·1 운동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에 비해 교세는 약했으나, 기독교인들은 매주 1회 이상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족교육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교회와 학교, 청년연합회(YMCA)와 같은 전국적인 연대와 조직이 3·1 운동의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한국근현대사의 큰 획을 잇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후에 3·1 운동의 정신은 해외의 식민지 혹은 봉건적인 정치상황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19년은 3·1 운동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는 당대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기록이면서도 미래 세대의 평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1 운동은 미시적으로 한민족의 독립과 전 세계 약소민족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며 일본의 올바른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21세기 과학기술혁명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족, 종교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해안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그러한 평가에 대해 국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도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1월 14일, 미국 뉴욕 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3·1 운동 백주년을 기념하여 이 운동과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의 하나인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 대한 발의는 뉴욕 주 상·하원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한국계 의원이다. 이 결의에 따라 앞으로 뉴욕 주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의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그 해 10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변화의 범위와 속도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일수록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교회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사회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안에서 기능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3·1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작 3·1 운동에 대한 연구는 양적 혹은 질적으로 계속해서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4]. 그마저도 그동안 3·1 운동과 관련하여 연구된 주제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독립선언서에 대한 연구, 3·1 운동의 배경 혹은 과정, 이 운동에 참가했던 인물 연구, 3·1 운동의 영향과 이후로 전개된 활동들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물론

3·1 운동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3·1 운동 정신과 관련하여 연구된 것은 많지 않다[5].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3·1 운동을 이끌었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적용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3·1 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3·1 운동의 발발과 그 의의

1. 3·1 운동의 배경과 발발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고 재정과 외교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국정 전반을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에 관한 제도(學制)를 개편하고 학교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근대교육의 보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6]. 더 나아가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만행이 시작되었다. 토지조사 사업을 이유로 일본인의 국토 점유율을 높였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 등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의 상징인 언어를 말살하였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조선인에 대한 본격적인 우민화 정책을 펼쳤다.

1910년대의 국제정세는 매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끼리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작은 국가의 문제에 관심을 둘 수가 없었고 공산혁명을 일으킨 소련 역시 아무런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 1918년 1월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이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를 제창

하면서 당시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독립에 대한 희망이 부풀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항복으로 1918년 11월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속해 있었던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는 오히려 더욱 높아져 있었다. 또한 승전국들이 개최한 1919년 1월의 파리강화회의에서는 패전국들의 식민통치 아래 있던 약소국들에게만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한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당시의 3·1 운동이 단순히 민족자결주의나 파리강화회의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에 편승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대외의 부정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민족의 정신과 문화유산 속에 내재된 자주와 평화의 의지를 꿈꾸는 민족 지도자들을 통해 독립에 대한 열망이 민중에게로 전해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국제정세가 크게 변할 것을 예상했던 손병희는 1918년 말부터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의 측근들과 더불어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에 만세시위 방식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고 이 운동의 3대 원칙으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유력인사였던 이승훈과 불교계의 한용운 등이 합류하면서 기독교와 천교도가 연합하여 전 민족적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일원화 원칙에 따라 학생단체 역시 이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은 주로 천도교와 기독교에 속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종교계 안에서만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문을 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국가의 독립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던 사람들이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사망하자 민중들 사이에서 그의 사망에 대한 일본의 독살설이 퍼진 가운데 3월 3일에 고종의 장례식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 600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二·八獨立宣言)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국내의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국내에서도 민족적인 독립운동이 동시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비밀리에 인쇄된 2만 1천매의 독립선언서는 전날인 2월 28일에 전국 각지로 전달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 운동이 감정에 치우쳐 폭력사태로 변질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폭력적 탄압에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이 운동의 명분을 분명히 부각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했던 33명 중 지방에 있었던 4인을 제외한 29명은 3월 1일 오후 3시경에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끝으로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곧 그들 스스로가 경찰에 알리고 모두 자진하여 체포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박재순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만일에 벌어질 수도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염려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고종의 죽음과 독살설 등으로 인해 민중의 감정이 매우 격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이 운동의 과정에서는 소수의 준비된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시위의 현장에서는 민중들 스스로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계획이었다[1].

한편 3월 1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철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수십만 군중이 밤까지 거리를 누볐고, 5월 말까지 205만 명이 참가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독립만세 시위집회가 줄기차게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본토에서부터 군대를 보내서 유혈탄압을 통해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그로 인해 5월 말까지 7,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만 6천명을 넘었다. 12월 말까지 이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된 수는 무려 19,525명에 달했다[7].

2. 3·1 운동의 의의

첫째, 3·1 운동은 민중이 나라의 주체로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것은 이 운동을 기획했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되었다. 그래서 3·1 운동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십대의 학생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독립을 외쳤다. 이것은 3·1 운동 이전에 진행되었던 의병 활동이나 혁명 운동이 소수의 지식층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민중운동이었다.

둘째, 3·1 운동은 또 다른 독립 운동을 낳았다. 3·1 운동은 단순히 일제의 군사적 압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만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3·1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폭력주의를 거부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면서 인류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세계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다. 민족자결주의의 주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전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현장에서 일어났던 3·1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인도는 3·1 운동의 비폭력투쟁 방법까지도 채택하여 1919년 4월 6일에 간디의 지도하에 '사타야 그라하 사브하'(진리수호) 운동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5월 4일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하여 베이징 대학생들에 의해 5.4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중국 탄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1 운동은 인도차이나 반도(印度支那半島)와 필리핀, 이집트 지역의 민족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3·1 운동은 제3세계 식민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어 3·1 운동 이후 전 세계 약소국들의 독립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1].

셋째, 3·1 운동은 종교적 차이를 넘어서 초교파적 연합과 협력의 시초가 되었다. 3·1 운동 이전에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관계를 가지는 정도였으나 1919년 2월 26일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 각 20명씩을 포함하여 65명의 대표가 '조선 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朝鮮耶蘇教長監聯合公議會, Korean Church Federal Council)를 조직하였다.

1924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결속시키고 기독교문화와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의견의 통합을 거쳐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朝鮮 예수教聯合公議會, 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늘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이 단체는 1931년에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37년에 해산되었다[8].

넷째, 3·1 운동은 교회의 사회참여의 길을 열었다. 당시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마저도 교회의 만세 운동 참여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으나 한국 종교지도자들은 복음적 입장에서 이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넘어 사회공동체의 평화와 정의구현을 위한 신앙양심의 표출로서 인식했고 3·1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게 되었다[9]. 일제의 경제적 수탈정책에 맞서 토산품 애용, 자급자족, 소비절약, 금주단연 등을 표어로 하여 전개되었던 금연/금주운동과 몰산장려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술과 담배의 판매로 걷어 들인 세금이 전체 세입의 30%를 차지할 만큼 많았기 때문에 일제는 당연히 한국인들의 무절제한 삶을 방관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독교의 절제운동은 19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23년부터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금주와 금연을 통해 돈을 절약하고 이를 통해 외채를 갚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어서 단순히 건강이나 신앙의 이유를 넘어서 범민족적 차원의 운동이었다. 또한 1920년대 초에 조만식 등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평양몰산장려회가 발기된 이후로, 국산품을 사용하여 민족자본과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을 이루자는 몰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에는 종교계는 물론이고 교육계와 상인과 기업인들까지 호응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의 공으로 돌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국적인 민족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서왔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이후로 YMCA가 주도했던 농촌운동도 교회

가 사회적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국제사회의 YMCA 운동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었고 보다 많은 대중에로의 접촉과 계몽을 위해서는 농촌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의 일반청년들은 3·1 운동의 성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라의 독립이 어려워지자 많은 실망과 자포자기의 정신으로 허무주의와 무정부주의 등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농촌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YMCA가 농촌운동을 펼쳤던 또 다른 이유로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일제의 강제수탈정책으로 인해 소작농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농토를 잃은 농민은 만주 등지로 이전하거나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3. 3·1 운동 정신과 기독교

3·1 운동 정신을 잘 드러내는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최남선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으나 어려서부터 기독교서적을 많이 읽었고 기독교인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게서 기독교적 사상을 빼고는 자신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다[12]. 실제로 그가 기초한 독립선언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의와 평등, 자유와 무저항주의 등의 개념들은 모두 기독교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3·1 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19년 3·1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종교별 혹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하여 각 종교계에서 추천된 인물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는데 순병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 백만 명 이상의 천도교 측은 15인, 기독교(장로교, 감리교)에서는 16인, 불교계가 2인이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약 20만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조선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었다[10]. 또한 이후에 이 33인을 포함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48인의 대표들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역시 절반에 해당하는 24인이 기독교인들이었다[5].

뿐만 아니라, 3·1 운동의 거사일로 내정되었던 날은 실제로 3월 3일이었다.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이 3월 3일(월)로 결정되자 많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모일 것을 예측하여 그 날로 내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사일로 인산일을 택하는 것은 전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천도교 측의 의견과 2일(日)은 주일(主日)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기독교 측의 의견으로 인해 결국 3월 1일로 결정되었다[11].

당시의 기독교는 천도교에 비해 신도수는 적었으나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였다. 이미 27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 2천 개에 달하는 집회소와 2300여 명의 조선인 교직자들이 있었고 300개 이상의 학교에서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병원과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의 여론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회유정책을 시도했으나, 정의와 평화, 인권과 평등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일제의 정책을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자 일제는 다시 방향을 수정하여 무자비한 탄압과 각종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감압적인 식민지배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했고, 그것이 3·1 운동으로 표출된 것이었다[12].

III.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회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디지털적 공간과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까지도 모호하게 하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

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생산된 결과물 안에도 ICT 인공지능이 결합되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정보와 사람이 소통하고 정보와 정보가 소통하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하나가 아닌 다층적 플랫폼(multilayer platform)을 기본으로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통합과 생성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증강세계(Augmented world)의 시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데,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 현실의 세계에서 접목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만남을 경험하지 않아도 증강의 세계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어선 가상의 세계와 자연스러운 융합이 가능해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1세기와 더불어 시작된 제4의 물결 시대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국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13].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인간성은 로봇화되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더욱 삭막해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기계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인간이 대신해 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므로,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기계에게 넘겨주면 오히려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14].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인간은 지금보다 여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 미술, 음악, 글쓰기, 운동 등 원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며 보낼 수도 있다[1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창의성과 공감, 헌신 등을 더욱 개발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여 집단적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16]. 결국 이것은 사람과 교육의 가치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 열려질 미래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17].

모든 산업 혁명이 그랬듯 최근의 정보 혁명도 세계 복음화의 훌륭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모바일 기기와 앱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유사 이래 가장 가속도가 붙은 시대를 살고 있다[18]. 이런 기술 혁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는 사람들을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에서 만나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자유로운 관계가 중요시되는데 지금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개방적이며 친근한 접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세대가 이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기계와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찾을 기회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갈망은 두 가지 소망으로 표출된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고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도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포스트-포스트모던(Post-postmodern) 세대들을 위해 선교적 교회는 “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22].

2. 3·1 운동이 지금 시대 교회에 주는 의미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쩌면 3·1 운동이 발발했던 100년 전의 상황과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여 년 전인 1910년대는 국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더불어 다시 식민지 조선으로 격하되었으며, 그

와는 상대적으로 일본은 대호황의 시대를 맞아 계속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었다. 중국은 청나라의 멸망으로 중화민국을 수립하였고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소비에트 연방인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등 대외적인 것에 관심을 둘 여지가 쉽지 않은 시기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은 유럽국가들 역시 붕괴와 독립이 반복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1차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퍼치고 있었다.

그랬던 시대와 비교하여 오늘날은 독일을 시작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AI와 사물인터넷 등 선진국들이 더 발전할 기회들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인 부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주요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적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부활의 조짐과 이슬람 국가(IS)들과 관련한 극단적 테러 단체들의 여전히 활동,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핵무장 국가들의 안보위협,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문제 등 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난제로 남아 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인구문제,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온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새로운 희망과 대안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 2016년에 열렸던 세계경제포럼의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다가올 미래 세계의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들 가운데 하나로 종교와 신앙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23]. 흥미롭게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는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가 언급되었고, 효과적인 현대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금융, 사회 및 환경 기능 외에도 영적인 차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실제로 종교와 현대화는 나란히 간다. 종교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면도 있지만, 종교의 메시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현대화의 도구들을 적절히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24]. 교회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을 향한 적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회

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처들을 치유해 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25].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 사건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는 사회적 필요에 눈을 뜨고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단순히 정교분리를 내세워 사회의 필요로부터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기독교가 인류 역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00년대 초기의 한국 역사에서도 기독교는 교육과 사회 개혁 분야 등 한국 사회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3·1 운동 당시의 그 시기에도 한국에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고 오직 종교의 자유만이 허락되었다. 이 때문에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 간부들이 기독교와 불교 등 세 단체의 지도자들이 만나 민족자결이라는 세계적인 세론을 배경으로 대중적이며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자는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7].

둘째로는, 3·1 운동의 과정에서 일선에서 움직였던 실행자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1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종교별 혹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하여 민족대표로 추천되었던 인물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젊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20대부터 40대까지가 23인 가운데 20명이었고, 전체 23인의 평균연령은 39세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구의 새로운 신문화와 신종교에 접하였던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운동이 장년층에 의해 계획되고 지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동력을 과시한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젊은이들이었다[26]. 그러므로 현재의 교회에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로, 3·1 운동은 무력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다. 3·1 운동의 과정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규합하여 천도교와의 연합을 이끌어 냈었던 이승훈은 오산학교의 설립자였고 교육자였다. 계몽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관련하여 서양과 한국 사이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의 경우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계몽의 주체이고 민중이 계몽의 객체였다면, 한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변혁시킬 주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운동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지식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섬기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서양의 계몽운동이 반기독교적이었던 것에 반해, 한국의 계몽운동은 오히려 기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졌다[1]. 이러한 이유로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그룹들 가운데 학생들의 참여는 기독교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관순 역시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모든 학교의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그곳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데 이미 그곳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3·1 운동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3·1 운동은 엄밀히 말해 성공한 운동이 아니었다. 독립을 목표로 했던 민족운동이었지만 그로 인해 독립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 행해졌던 의병활동이나 독립전쟁과 비교해 본다 해도 단순히 거리에서 만세만을 외쳤던 매우 단순한 방식의 운동이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이 여전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그 이상만큼의 숭고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비폭력 정신, 독립을 간절히 원하지만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겠다는 정신, 혼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정신, 또한 모두가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 역할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인식, 소유권에 대한 개념, 소비의 패턴, 일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 등 인류의 정체성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주어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19]. 실제로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분야의 혁명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까지 재구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27].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언급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예배와 통치방식(governance),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것이 형성되는 사람들의 습관들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28].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이미 초만원이 되어 있는 사회에 또 다른 세계나 영역을 추가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돕는 새로운 구조를 고안해 내고, 더욱 많은 의미와 깊이와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 공동체적, 관계적,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29].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속의식(belonging)을 강조하는 공동체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공동체가 개발되고 응집력과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응축(social condenser)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erg)는 이것을 '세 번째 장소(a third place)'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카페, 커피숍, 서점, 술집, 미용실 등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장소는 친밀감을 양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며 인간관계와 다양한 인간 접촉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립대신 사교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장소를 통해서 삶이 더욱 생동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30].

사실 올덴버그보다 먼저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사회적 함께함(social togetherness)과 사회적 소속(social belonging)에 대한 집약적 감정을 암시하는 '코뮤니타스'라는 표현으로 이 개념을 소개했다[31]. 그는 보통의 공동체 개념과 대조하여 코뮤니타스를 설명하면서 공동체가 주로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내부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코뮤니타스는 외부 지향적으로 사회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함께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코뮤니타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다양한 제한성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많은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인식, 감정, 의욕, 창의력 등의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32]. 이렇게 해서 형성된 공동체는 자발성(spontaneity), 유용성(availability), 빈번함(frequency), 공동의 식사(common meals), 지역성

(geography)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때, 공동체로서의 본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진제로서 드러난다고 했다[33].

이처럼 창의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며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이 21세기의 대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도 제도와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3]. 그런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반문화(counterculture)를 특징으로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그리고 동시에 세상과 연결된 교회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34]. 보다 상호적이며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소속감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의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대조적 공동체(contrast community)로서의 선교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둘째로, 어느 시대나 그러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1 운동의 과정에서 일선에서 활동적인 주체로 활약했던 연령층이 어떠한지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면 Z세대로 이해할 수 있다. Z세대란 1995년 중반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는데[35], 다른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사전에 미리 선언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약 40-50여 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Z세대가 그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들은 모든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이 자연스러우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익숙하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 기기나 게임의 영향력은 매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TV보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선호하고 정보의 대부분을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들 통해서 얻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대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과 정보를 접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36]. 또한 이렇게 이 세대들은 밀폐된 교실에서 인터넷 가상공간으로 순간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광장을

형성하는 주변 이웃과 생물권에까지 그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이 세상은 불가분의 공유사회라는 사실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37].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초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Z세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에 익숙하고 이러한 연결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멀티태스킹도 가능할뿐더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도 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Z세대의 초연결성과 추수용적인 특징은 전 세계를 지역의 구분이나 경계 없이 하나로 연결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38].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기계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하는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Z세대는 기계와 인공지능 로봇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두 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넘겨준 인간의 역할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기성세대들을 위한 교육이다. 둘째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시켜 인공지능 로봇을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사회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윤곽하게 하도록 도와줄 Z세대를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애국, 애족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고 생각할 줄 아는 교회. 혼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사회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사유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실천이 가능한 공동체여야 한다. 3·1 운동 당시의 교회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며 비인권적인 일제의 권위 앞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위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의 교회에게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공동체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높은 가치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운동’에까지 동참하게 함으로 기독교적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온전한 교회됨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일제의 불의한 권력과 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독립이나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 속에는 3·1 운동의 정신과 철학이 있었다. 그것은 신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비폭력, 우애와 협력, 정의와 평화와 같은 시대정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항거했으며 그들 각자의 항거가 곧 민족의 항거였다.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39]. 그런데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선교적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교회적 현실에서 출현한 선교적 교회의 교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됨은 건물로서의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인 사람을 통해서 구현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 진다[40]. 사람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눅 17:20-21).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다(마 18:20).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선교적일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갈수록 선교적 교회는 이원론의 반대적 개념인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신앙을 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서 문화사역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34].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던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바른 신앙적 관점이 일상의 삶, 혹은 직장에서의 자세를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 일에 대한 동기과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수준을 드러내며, 일의 방식과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다[34]. 따라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책임성과 구별성, 그리고 탁월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양육을 위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고안함으로 다양한 시간과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바른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에서의 탁월성이 사회 공동체에서 신앙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도록 함으로 일상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34].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깊은 산중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잡한 도시와 분주한 직장, 할 일 많은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논의

3·1 운동 당시의 교회는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교회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신과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곳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희망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인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최근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함이 보편화될수록 세속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인권과 평등의 역사적 기초를 기독교가 가진 초월개념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과학이 인간의 평등 개념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윤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평등 개념의 기저에는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사상을 발견하게 된다. 인권 개념의 기초 역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개념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 그 3·1 운동의 정신에는 분명히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공공성 부분이다. 교회는 기독교적 정신인, 더 나아가 성경적 정신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 주거, 도시권 등 거시적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능하도록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과 기계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들과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 등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휴식시간, 성찰, 의미 있는 대화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21]. 이것은 결국 새로운 시대에는 바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므로 홀로 살아가는 시대, 개인주의 극치의 시대가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41]. 이러한 시대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은 100년 전의 3·1 운동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대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때 바른 교회적 정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융합과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적 교회는 일상의 삶과 예배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신학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축이 정체성(identity)과 적합성(relevance)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42]. 교회는 분명 세상에 대해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정체성이어야 한다. 분명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통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가장 먼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교회의 정체성과 적합성이 동시에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100년 전의 3·1 운동 정신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의 신약성서 시대로 돌아가 교회의 교회됨과 정체성을 바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신들의 삶을 포괄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이를 각자의 삶과 소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신 다양한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재순,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홍성사, 2015.
- [2] 류시현,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 - 시간, 장소, '민족/민중'," 역사와 현실, 제74호, pp.175-202, 2009.
- [3] 이원범, "삼일정신과 사심(史心)," 3·1 운동기념사업회 편, 3·1 정신과 미래한국, 엠-에드, 2011.
- [4] 이정은, "3·1 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제26호, pp.25-41, 1996.
- [5] 문인현, "3·1 운동과 개신교 지도자 연구," 사총, 제20호, pp.73-134, 1976.
- [6] 유용태, 박진우, 박태균,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6.
- [7] 나카쓰카 아키라, *근대 한국과 일본*, 김승일 역, 범우사, 1995.
- [8]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0076002> (2019년 2월 22일 접속).
- [9] 전택부, "삼일운동의 교회사적 의미," 기독교사상, 제16권, 제3호, pp.42-49, 1972.
- [10] 이상규, "삼일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학술원 제52회 학술공개세미나, 미래한국 (인터넷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 (2019년 2월 1일 접속).
- [11] 3·1운동(三一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터넷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772> (2018년 12월 22일 접속).
- [12]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 (2019년 2월 1일 접속).
- [13] R. Boehme, *The Fourth Wave: Taking Your Place in the New Era of Missions*, YWAM Publishing, 2011.
- [14] 봉원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선교적 교회의 역할과 전망," 선교신학, 제50호, pp.190-224, 2018.
- [15] V. Wadhwa and Alex Salkever, *The Driver in the Driverless Car: How Our Technology Choice Will Create the Future*, Berrett-Koehler Publishers, 2017.
- [16]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ideon Rose, 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Davos Rea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6.
- [17] 진성희,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기술교육에 대한 사례조사 및 산업체 수요조사: 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차 중심의 융합교육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36-48, 2019.
- [18] E. Draper, "Bible Translators Hope to Have Every Language Covered in Fifteen Years," *Denver Post*, June 22, 2010.
- [19]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rown Business, 2017.
- [20] 이후천,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 교회 선교," 선교신학, 제43호, pp.127-160, 2016.
- [21] 이상훈, *리뉴처치: 창조적 사역을 위한 교회 갱신 모델*, 교회성장연구소, 2017.

- [22] M. Dever and David Platt,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Crossway, 2013.
- [23] <http://www.worldea.org/news/4728/world-economic-forum-sees-a-greater-role-of-faith-religion> (2018년 12월 30일 접속).
- [24] J. Micklethwait and A. Wooldridge, *God is Back: How the Global Revival of Faith is Changing the World*, Penguin Press, 2009.
- [25] D. A. Seamands,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Chariot Victory Publishing, 1991.
- [26] 이동초, *천도교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해*, 모시는 사람들, 2010.
- [27] Y. N. Harari,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Spiegel & Grau, 2018.
- [28] S. Hauerwas, *The Hauerwas Reader*,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 Duke University Press, 2003.
- [29] M. Frost, *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of Disengagement*, IVP Books, 2014.
- [30] R. Oldenburg, *The Great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Marlowe & Company, 1999.
- [31] V.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1969.
- [32] V. Turner, *From Ritual to Theater: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PAJ Publications, 1982.
- [33] R. Frazee, *The Connecting Church: Beyond Small Groups to Authentic Community*, Zondervan, 2001.
- [34] T.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Zondervan, 2012.
- [35] D. Stillman and J. Stillman, *Gen Z Work: How the Next Generation is Transforming the Workplace*, HarperCollins, 2017.
- [36] T. M. Koulopoulos and D. Keldsen, *The Gen Z Effect: The Six Forces Shaping the Future of Business*, MA: Bibliomotion Book+Media, 2014.
- [37] J. Rifkin,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the Collaborative Commons, and the Eclipse of Capitalism*, St. Martin's Griffin, 2015.
- [38] 박병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십*, 교육 & 교회, 거꾸로 미디어, 2018.
- [39] M. Frost, *The Road to Missional: Journey to the Center of the Church*, Baker Books, 2011.
- [40] 봉원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 이해: 선교적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387-401, 2017.
- [41] 유양석,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준비 여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pp.566-575, 2019.
- [42] J.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Margaret Kohl (trans.), Fortress Press, 1999.

저 자 소 개

봉 원 영(Won Young Bong)

종신회원



- 199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신학 석사)
- 2010년 5월 : 미국 Andrews University 신학과(목회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리더십, 교육 콘텐츠